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21. 8. 12.(목)
담당부서	경영지원본부 경영혁신부	담당자	오병욱 부장(02-6908-8584) 한설희 차장(02-6908-8507)

서울혁신포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경제취약계층 소득증대를 위해 기업제로페이 활성화 나서

- 서울혁신포럼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경제취약계층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5일 기업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서울혁신포럼은 서울에 본사를 둔 7개 공공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이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 네트워크다.
-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제로페이를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해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5개 기관은 협약식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 서울혁신포럼은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및 소비자 확산 전과를 통해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이용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직불 기반인 제로페이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등을 결제하는 간편결제 인프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위해 도입되었다. 소상공인을 물론 지역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헌 플랫폼이다.

□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 혁신포럼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제로페이가 공공부문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